

20세기 후기에 나타난 서양 남성 속옷의 변화

김 주 애

경상대학교 의류학과

I. 서 론

최근 여성복 못지 않게 남성복도 다양화되면서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속옷에 관한 것은 적은 실정이다. 지금까지 속옷은 주로 여성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므로,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후기의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환경이 속옷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검토하고, 겉옷과 속옷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남성 속옷의 특징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.

II. 본 론

1. 20세기 후기에 이르러 짧은 소매로 된 티 셔츠는 속옷 외에 스포츠복으로도 이용되었다. 1960년대에 자켓이 밀착됨에 따라 신체선을 나타내는 보디셔츠가 이용되었으나 이전의 일직선 재단이 더 인기가 있었다. 터들 넥 셔츠는 겉옷에도 적용되어 터들 넥 스웨트로도 이용되었다. 또한 속옷을 모방한 셔츠-자켓도 착용되었다. 이브닝 셔츠 앞부분에 러플과 주름으로 장식되거나, 18세기 스타일의 러플이 손목장식에 적용되었다. 1970년대에 셔츠의 칼라는 슈트 칼라의 라펠 폭에 비해하여 크기가 다양하였으며, 밀착된 셔츠는 타이트한 소매와 큰 커프스로 구성되었다. 1980년대 셔츠는 풍성한 목판과 작은 커프스가 부착된 풍성한 소매로 변화되었고, 1990년대에 셔츠는 약간 밀착되면서 이중 트임 덧단으로 여졌다.

1970년대를 제외하고는 작은 칼라의 셔츠와 작은 타이가 유행되었고, 1980년대부터 노 타이 차림이 착장의 한 형태로 되어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패션 경향이 속옷에도 적용되었다. 이전의 분리가 가능하였던 칼라는 1970년대부터 셔츠에 부착되었다. 칼라형태는 1950년대 초기에 넓은 포인트로 이루어졌으나, 1960년대에는 둥글거나 뽕족한 포인트였고 1970년대에는 좁고 긴 포인트로 변화되었다.

2. 1950년대 말기에 매우 짧은 브라이프형이 이용되며, 1960년대 후기에는 프린트된 박스 쇼츠가 이용되었다. 짧은 층은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형태나 디자인을 선호하였으나 노인은 흰 무지로 된 헐렁한 언더팬츠나 쇼츠 외에 베스트를 유지하였다. 1970년대에는 면 그물로 된 자키 브라이프와 비키니 쇼츠가 유행하였다. 1980년대에는 유색의 클래식 브

리프 외에 보온용 속옷이 만들어졌다. 1990년에는 비키니, 쇼츠의 여밈으로 끈과 자퍼가 이용되었다.

3. 웨이스트코트는 자켓과 조화되는 스리피스 슈트의 한 부분으로만 착용되었고, 싱글 브레스트에 노-칼라 형태였다.
 4. 나이트웨어로는 길이가 짧거나 긴 팬츠로 구성된 파자마와 나이트셔츠가 이용되었다. 1970년대에 하이넥·브이넥의 풀오버나 셔츠 칼라로 된 파자마 형태가 유행되었다.
 5. 20세기 전기에 착용된 싱글릿과 울인원이 계속 이용되었으나 쿨셋은 거의 착용되지 않았으므로 의복형태보다는 편안함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.
- 20세기 후반에 속옷은 색상과 무늬가 다양하였으나 특히 밝은 색에 줄무늬가 인기 있었다. 소재는 면·마·견 외에 가죽도 사용되었다.

Ⅲ. 결 론

20세기 후기에 셔츠는 보통 작은 칼라로 구성되었으나, 1970년대에는 걸옷에 따라 셔츠의 칼라 크기가 달라짐으로써 걸옷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. 드로워즈는 색상과 재단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. 웨이스트코트는 자켓과 조화되는 소재로 싱글브레스트 단추에 칼라 없는 밀착된 형태였다. 1960년대 후반에 셔츠의 터들넥 형태가 걸옷에 모방되거나, 셔츠-재킷을 통하여 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. 이로서 속옷도 걸옷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. 또한 18세기의 러플이 1960년대에 나타남으로써 20세기 후기의 복고풍 경향이 속옷에도 적용되어 사회 환경과 속옷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.